

최한주 한국화가 '임금 피크전'

갤러리 한주서 3월 말까지 '그리움이 가득한 날' 주제로 30여점 작품 전시

갤러리 한주(대표 최한주)에서 이달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최한주 한국화가의 '그리움이 가득한 날'을 주제로 하는 특별한 전시회 '임금 피크전'이 열린다.



최한주 한국화가

전시 주요작품은 자신이 그동안 일과 화업을 병행하면서 밤을 새워 제작한 전통 수묵채색화의 사실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한국화 작품과 추상화를 넘나들며 고려하는 작가의 가능성을 집약시키는 조형적으로 제작한 작품, 인물화, 동물그림, 문인화, 서예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최한주 한국화는 정음시 덕천면 출신으로 정음고를 거쳐 일광대 미대 졸업 후 특이하게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30년간 재직하며 화업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성장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과 원목회 회원으로 활발한 미술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이모작 인생을 통해 전북미술을 대표할 중견작가로 성장해 나갈 기대주로 손꼽힌다.

수상경력으로는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과 입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KRC(한국농어촌공사) 가족문예상 종합대상 수상, 아세아 평화통일 서예대전 입선과 각종 공모전에 다수 입상하여 팔복할만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가 기대된다.



최한주 한국화가 작품

각종 기획전과 단체전 출품 경력으로는 벽천 나상목 화연전과 KRC(한국농어촌공사) 분사 작가 초대전을 필두로 한·중 현대미술 소용전, 한·인도네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한주 화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며 일과 화가로서 불면의 밤을 새우며 제작한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는 첫 전시회이니 만큼 설렘이 크다"며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무

형의 실체를 뜨거운 가슴으로 앓고 그리움이 가득한 날에 점과 선으로 여백(면)을 그리며 인간의 존재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

'갤러리 한주'는 최한주 화가가 사재를 털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5길 11-1에 소재한 건물 2층을 임대해서 예술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 전북 미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자 갤러리와 카페 형태로 꾸며 설립한 아름다운 문화공간이다.

/양은경기자

제6회 '혼불의 메아리' 공모전

최명희문학관 · 전주MBC · 혼불문학 · 다산복스
4월 28일까지 독후감 · 신청서 이메일 · 우편 접수

제6회 '혼불의 메아리' 공모전이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최명희문학관과 전주MBC, (사)혼불문학, 다산복스가 마련한 이 공모전은 인문학적 감성을 지닌 독자를 발굴하고, 그 독자들의 꾸준한 독서 활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다섯 번의 공모전을 통해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총 2,033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혼불의 메아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후감 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독자는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A4용지 2장~7장(200자 원고지

15매~50매) 분량으로 자유롭게 쓴 뒤,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onjuhonbul@nate.com)이나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29)으로 4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대상 1명에게는 2백만 원, 우수상 4명에게는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가작 30명에게도 혼불문학상 수상작(10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5월 말 이뤄진다. 자세한 참가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국내 독립 예술영화 해외 배급 적극 지원

전주국제영화제, '워크 인 프로그레스' 프로그램 신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국내 독립 예술영화의 해외 배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워크 인 프로그레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장편 프로젝트라면 장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그간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 독립예술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전주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워크 인 프로그레스'는 전주프로젝트의 신규 지원사업으로 국내 장편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배급 성과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워크 인 프로그레스' 프로그램은 후반

작업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라면 장르에 관계 없이 응모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작은 제15회 전주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열리는 시사회를 통해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갖는다.

이 시사는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 프로그램 등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작품 상영 후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1편에는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은경기자

전주문화재단, 전국 문화재단 대상 유공자 표창

김진 차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선지영 차장-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2년 전국 지역문화재단 대상 연말 유공자 표창에서 김진·선지영 차장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국 기초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다.

이에 따르면 장관상을 수상한 창작기획팀 김진 차장은 지역 예술가의 실험적 작품 개발지원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특화사업 발굴과 예술가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영감을 전하

는 전시를 기획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회장상을 수상한 경영지원팀 선지영 차장은 지역 내 대학 및 산학협력단,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그동안 지역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해 헌신수범하고, 나아가 국가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일점 부분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수상한 두 차장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보냈다.

/장은성기자

1인 1전통한지공예 '한문화공예교실' 성료

10개 초등학교 700여명 학생 참여

초등학생을 위한 1인 1전통한지공예인 '한문화공예교실'이 지난 12월 30일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미래주역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공예의 가치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한지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7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문화공예교실은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활용해 △나만의 한지등 만들기 △한지뜨기 △좁치한지 응용소품 만들기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2022년 5월 전통한지 계승과 보전,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인 전주한지연구소가 개관, 이곳에서 집중적인 체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체험 참가 학생들은 전주한지연구소에서 한지 장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선조들이 사용하던 외발뜨기(홀립뜨기) 방식으로 한지를 직접 떠보기도 하고, 한지의 주원료인 다펀을 찌고 벗겨 보는 제조 전 과정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몸소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도영 원장은 "지러나는 아이들에게 한지의



우수성과 수공예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현장체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며 "올해는 흑석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공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